| 불자 세상보기 |

‘효율적 이타주의자’ 가 됩시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어금니 아빠’ 사건에 국민 공분
기부금으로 호화로운 생활 물의
선한 의지의 기부 줄어들까 우려

전문가 “믿고 주는 게 훨씬 낫다”
‘무주상보시’ 란 불교 가르침 유사

세계적인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될 것” 주문
머리로 하는 기부가 진정한 기부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가 나중에 속은 것을 알면 한동안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얼마 전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의 일종인 ‘거대 백악종’을 앓던 딸의 사연으로 유명해진 이 모 씨가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방송과 SNS를 통해 딸의 수술비가 없다고 호소하여 약 12억 8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양면성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비싼 돈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는가 하면 고가의 혈통견을 분양받아 되파는 등 호화 취미생활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그가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된 이유는 자신도 여러 차례의 백악종 수술과정에서 잇몸을 모두 긁어내 달랑 어금니 하나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부녀가 시청자들로부터 동정과 관심을 끌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기부자들의 선행의지를 꺾고 더 나아가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개인의 지속적 실천과 함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사한 사건을 빌미로 ‘기부해도 엉뚱한 사람들의 배나 불려줄 뿐’이라는 방어적 시각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방식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기부에 관한 한 ‘믿고 주는 것이 안 믿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이는 마치 불교 윤리의 ‘무주상보시’를 연상시킨다. 세계적 실천윤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피터 싱어에 의하면 세상에는 ‘기부를 해야 할 이유가 기부를 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를 압도한다. 그의 최근 저서 〈효율적 이타주의자(The Most Good You Can Do)〉는 이러한 싱어의 문제의식과 이에 상응하는 윤리적 행위전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피터 싱어의 기본입장은 공리주의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가 추구하는 행위의 목적은 나의 행위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가능한 적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를 기부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싱어는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제안한다. 기부행위에도 인간적 열정보다는 윤리적 냉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베푼 나의 선의가 고작 값싼 동정심으로 치부되고 말았다면 향후 나의 기부행위는 더욱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리주의자답게 ‘가슴’보다는 ‘머리’로 하는 기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부가 될 수 있음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자신은 이런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볼 것을 권유한다. 우리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기부 전략이라고 본다.

다시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되돌아가 생각해보자. 우리는 기부금을 유용한 단체나 개인에게 실망한 나머지 당장 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피터 싱어의 대답이다.

기부의 중단보다는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한 기부자 즉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교훈은 우리의 기부행위가 윤리적 타산과정을 동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도덕적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자.

社 說

국토부, ‘제2의 알고가 사태’ 만드나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항상 만나게 되는 이정표는 지역 명찰로 가는 표지판이다. 합천하면 해인사, 속리산하면 법주사, 김천하면 직지사가 연상되듯이 지역 문화에서 사찰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사찰로 가는 길을 알려주던 표지판이 없어질 상황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한국의 명찰(名刹)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현재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사적지 등을 명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인 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는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

또한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소위 위락시설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지만, 공공재며 문화재인 사찰을 표지 않는 것은 해당 부처의 몰지각한 문화재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불교계에 책임도 없지 않다. 10년 전 지침 개정이 이뤄졌을 때 살폈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전혀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조계종에서 공문으로 항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역시 지침 개정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토부는 2008년 ‘알고가’ 사태를 통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제2의 알고가 사태’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신계사 복원 10주년에 부쳐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 10주년을 맞았다. 금강산 신계사는 역사적으로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소실됐다. 이후 2004~2007년 남한의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복원 불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내금강 장안사 복원까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신계사는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단절된 상황은 현재까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경색 국면에서 신계사는 남북 불교를 넘어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사찰을 복원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10월 2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내년에는 남북 교류의 길이 열릴 것”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불교계는 지금부터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한다. 신계사 복원을 뒤이을 새 사업 구상에 나서야한다”는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는 내금강의 불교 유적들의 보존·복원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내금강에는 장안사지, 마하연사지, 표훈사 등 역사적 명찰들이 즐비하다. 이들 사찰 복원과 활용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관심이 컸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신계사 10주년은 남과 북이 따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다시 교류가 재개돼 남북 불교가 함께 만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했으면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1030세대 ‘맞춤형 포교’ 필요

불자 인구 감소와 함께 청소년 세대들이 불교를 외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는 최근 108청년회를 구성했다. 청년회가 있지만 보다 젊은 1020세대의 청년들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봉은사가 왜 기존 청년회 외에 새로운 청년회를 발족했을까.

그 답은 자명하다. 청년회 조직 구성이 다소 장년들로 구성되며 청년들만의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1020세대들로 새로운 청년회를 구성하고 이 연령대 나이에 맞는 포교를 새롭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다. 아무리 위 세대에서 청소년세대를 이해하려 해도, 청소년세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 세대다.

많은 청년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사찰에서는 기존 청소년 불자들마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청년회가 잘 조직된 교회나 일부 대형사찰을 제외하고는 정작 불자로서 신행활동을 하려고 해도, 비슷한 나이대의 도반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존의 청년불자 조직들이 고령화되고, 또 인원이 줄다보니 새롭게 유입된 청년불자들에 과다한 관심, 업무가 몰렸다. 이는 오히려 신심과 원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만 있었다.

얼마 전 한 사찰에 취재를 갔다 만난 20대 남성불자는 “사찰에서 또래를 만날 수 없어 아쉽다”며 “특히 선배 불자들의 조언 아닌 조언으로 오히려 힘들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청년불자들이 워낙 적다보니 법회 등에 참여해도 눈에 띄고, 어른들의 관심이 몰린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혼밥·혼술·혼놀’(혼자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기)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됐다. 일부 매장에서는 직원들의 조언 없이 혼자 쇼핑을 하는 의사표현이 명시된 바구니를 들고 쇼핑한다. 회피, 은둔까지는 아니지만, 개인화된 경향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신행’하면 곧잘 ‘법회’를 떠올렸다. 이에 따라 청년불자들의 신행도 곧 사찰에서 청년불자들이 법회를 보는 것으로 고정화됐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개인화 되어가는 청년층에 맞춰 개인화된 불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혼자서도 사찰에 쉽게 찾을 수 있고, 또는 굳이 사찰에 오지 않더라도 불교를 접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반야톡’을 낸 권진영 법사는 청소년 포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종립 중학교에서 교법사로 있는 그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 법사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에 나오는 부분을 통해 상담하고 있다. 효과는 상당했다.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 중 절반이 종립대학, 그리고 불교학과에 진학한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청소년 포교에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로 불교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불자 중 10대는 10년 사이에 81만여 명이 감소했으며, 20대도 80만명이 넘게 감소했다. 10대와 20대의 감소가 사실상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0세부터 10대까지의 감소폭까지 감안하면 불교의 미래는 어둡다. 곧 청소년 포교에 불교 미래 향방이 달려있는 것이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